

# 열린신문

2026 vol. 372

MAY 5월호

 말씀 마주보기

## 세상의 회복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가정을 통해 이 세상의 질서를 세워 가시기 위함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어 가시고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입니다.

첫째, 가정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각각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도록 만드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통해 서로를 보완하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연합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둘째,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단지 이성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바로 그 사랑을 실제로 연습하는 공간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과 이기심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인내, 섬김과 책임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렇게 가정은 사람다운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가장 먼저 익혀 가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이러한 가정의 질서는 크게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 부부 관계도 더 이상 서로를 돕고 세워 주는 관계로 머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소유하려 하고,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 하는 왜곡된 관계로 변해 갔습니다. 본래 서로를 돕고 보호해야 할 관계가 통제와 지배의 관계로 뒤틀리면서, 가정은 갈등과 상처, 파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곧 다음 세대에도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첫 가정의 다음 세대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을 기록하며, 죄가 가정의 질서를 얼마나 깊이 무너뜨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정의 회복은 무너진 순서를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다음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바로 세워집니다.


가정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먼저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의 질서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성진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사무국 편집주간 이성도 최선미 취재팀 김환 신미숙 이숙영 최희주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2 팩스 (031)421-9411 e-mail yullin@yullin.org URL www.yulli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방배동 예배당을 거쳐 2002년 4월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라는 신앙의 목표를 실천하며, “회복된 성도가 가정을 살린다/회복된 가정이 교회를 살린다/회복된 교회가 세상을 살린다”는 목회 비전을 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총 8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본문과 오늘

#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김성진 담임목사

## 들어가는 말

기독교는 흔히 '사랑의 종교'로 불립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기독교만큼 사랑을 잃어버리기 쉬운 종교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이며, 왜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다시 물어야 합니다.

교회는 본래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가는' 이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갈등과 문제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그것이 구조처럼 굳어져 간다면, 우리는 이를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해야 합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심각한 타락은 종교개혁 직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직 세습, 면죄부 판매, 권력화된 교회의 모습은 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형태만 달리하여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비판받고 있으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을 제도나 시대 탓으로만 돌리는 한,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문제의 출발점이 언제나 '한 사람', 곧 우리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은 구조 개혁 이전에 개인의 회개와 책임 있는 신앙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고린도교회를 통해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 은사는 넘쳤으나 사랑은 부족했던 공동체

고린도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로,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고린도는 해상과 육상 무역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로, 부와 문화가 집중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향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극심한 도덕적 타락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우상과 신전, 술집이 뒤섞인 이 도시는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corinthianize)'라는 말이 곧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정도로 문란했습니다. 이처럼 극도로 타락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놀라운 은사와 외적 성장을 경험했지만, 삶의 변화는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습관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유입되면서 성적 타락과 무질서가 공존하게 되었고, 풍성한 은사마저 자기 과시와 경쟁의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결과 은혜와 죄가 동시에 머무는 기형적인 상태 속에서, 교회는 점점 혼란과 분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고린도전서를 통해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합니다. 그가 제시한 유일한 해답은 제도나 은사가 아니라, 교회를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이었습니다.

## 가장 좋은 '은사가 아니라 가장 좋은 '길'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방언과 예언, 병 고침 등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한 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말로 은사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는 은사들 가운데 무엇이 더 뛰어난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인해 혼란과 분열이 일어난 고린도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려는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이어지는 사랑에 대한 말씀은 은사의 연장이 아니라, 문제 많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장 거룩한 말도  
공연 시작을 알리는  
쇠종 소리에 불과하다.

은사는 넘치고 열심은 뜨거웠으나  
사랑이 사라진 교회는  
은혜와 죄가 함께 머무는  
혼란의 자리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극장 문화가 매우 발달한 도시였고, 공연이 시작될 때 사용되던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쇠로 만든 큰 종이였습니다. 그 종은 음의 높낮이나 감정을 전달하지 않으며, 그저 “공연이 시작됩니다”라고 알리는 신호음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말은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던 '방언'을 넘어, 바울이 '천사의 말'로까지 표현한 모든 언어적 은사를 가리킵니다. 오늘날로는 설교와 권면 등 신앙적 언어 전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말들을 아무리 능력 있게 하고, 아무리 유창하게 전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공연 시작을 알리는 쇠종 소리처럼 아무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말의 종교'입니다. 설교가 있고, 기도가 있으며, 권면과 위로의 말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 없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고전 12:31-13:7)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받으세요”, “힘내세요”라는 말이 진심 없이 반복될 때,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신호음이 됩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닿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끝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예언의 은사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순교에 이르는 헌신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감정적인 과장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봉사, 헌금과 헌신을 움직이는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고린도교회는 은사가 없어서 무너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물질이나 열정이 부족해서 실패한 공동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넘쳤지만,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 사랑이 없었기에 분열과 다툼, 무질서와 무기력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처방으로 사랑을 제시하며, 사랑이 없는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분주함에 불과하다고 선언합니다.

## 사랑의 본질은 삶의 태도

이어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이는 사랑이 말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실제적인 행동의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고, 이웃 사랑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은 사랑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은 반드시 보이는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요일 4:20). 하나님 사랑은 추상적인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두신 연약한 이웃을 향해 마음과 시간과 손을 여는 데서 됩니다. 사랑은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눈에 띄게 하신 그 사람을 향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함으로 인해 자신이 방전될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사랑으로 움직일수록 오히려 삶은 충전됩니다. 사랑을 아끼고 자신을 지키려 할수록 우리는 점점 메말라 가지만, 사랑으로 한 걸음 내딛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결론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16:14).

## 맺음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받은 성도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서로를 향한 사랑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참된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과 능력의 회복은 사랑에서 시작되며, 이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의 말과 기도와 삶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담게 됩니다. ✨

교회섬김조직

# ‘말씀의 닻’ 비전 따라 공동체 세워가다



이성도 목사 행정사역위원회 담당  
immanuel0912@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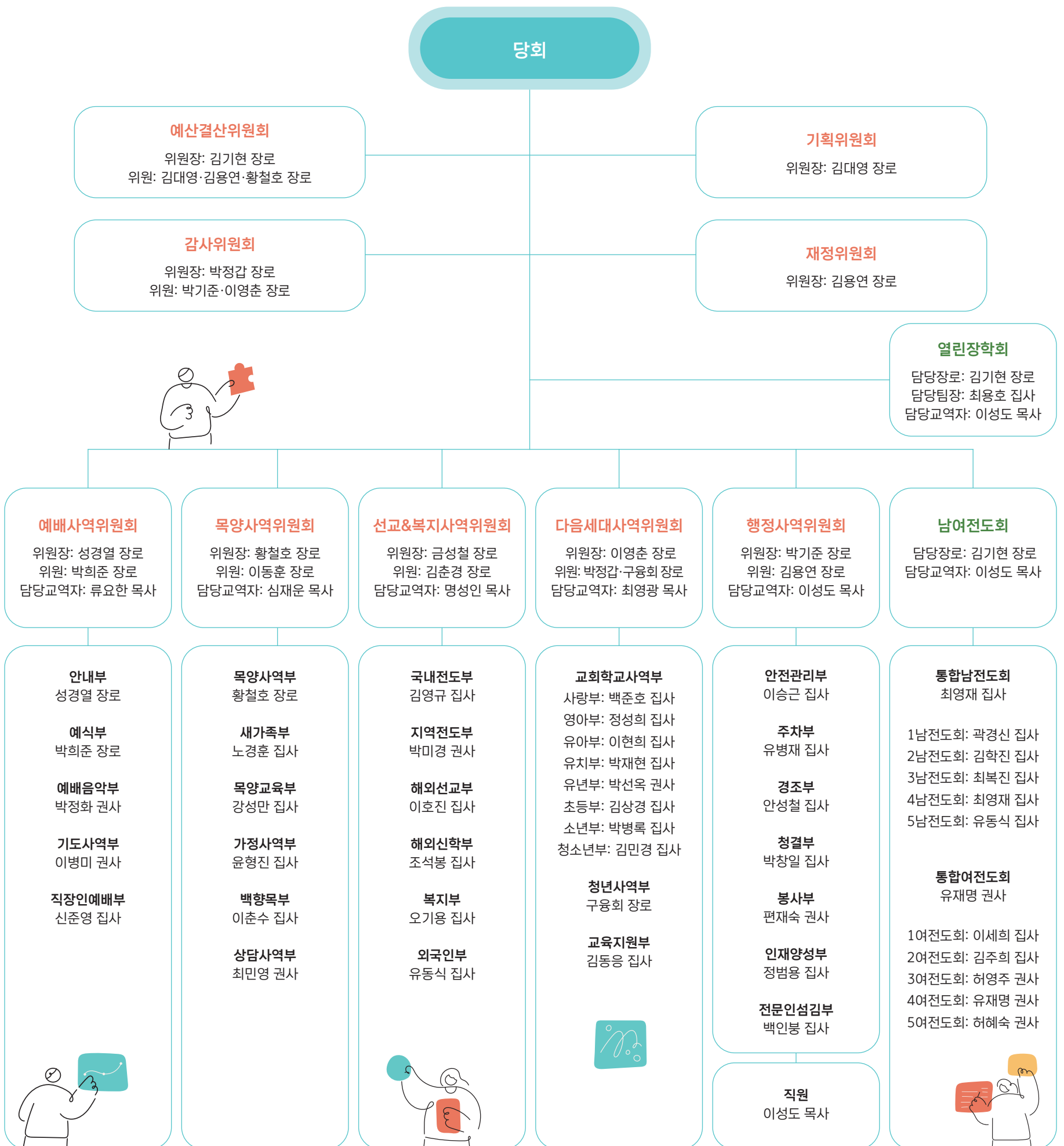
열린교회는 세 가지 목회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복된 성도가 가정을 살리고, 둘째, 회복된 가정이 교회를 살리며, 셋째, 회복된 교회가 세상을 살린다는 비전입니다. 2026년 교회 사역 운영 체계는 이러한 목회 비전이 견고하게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충분한 기도와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수립되었습니다.

특히 사역 체계는 9위원회 27부와 2기구로 편성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성도가 거룩한 예배와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경험함으로써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데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역 체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이번 교회 섬김 조직은 단순한 행정의 편의성이나 운영의 합리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삶의 감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구 및 세대 중심 목양을 더욱 견고히 하는 한편, 성도 간 교제와 섬김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전도회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와 교역자들이 질서 있게 세워지고, 사랑으로 확장되는 섬김이 이루어지도록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기도와 협력을 통해 세워진 이번 교회 섬김 조직이 ‘인생의 바다에 말씀을 닻을 내리자’라는 2026년 열린교회 비전을 온전히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대합니다. ☆




등불학교(유년부) 후기

# 하나님, 제가 지혜 안경을 쓸게요



권진우 유년부 2학년



 사랑하는 하나님께 안녕하세요, 하나님! 저는 귀 인초등학교 2학년, 복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 권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유치부 때부터 등불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지만, 유치부 시절에는 때때로 장난을 쳐서 전도사님께 혼나기도 하고 선생님을 힘들게 해 드리기도 했어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유년부가 되어 등불학교를 한다고 하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라는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 새 마음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달라진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등불학교에서 좋았던 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된 것이에요. 솔직히 성경은 글씨도 작고 뻑뻑해서 읽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용을 이해

하기 힘들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엄마께서 성경은 이해가 돼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로켓을 쏘아 올리듯 ‘수직선’처럼 받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수직선처럼 받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눈이 나쁘면 무조건 안경을 써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혜 안경’을 꼭 써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잘 쓰다가도 벗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말씀을 써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으니까 계속 쓰라고 성경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솔로몬이 지혜자라고 하지만, 솔로몬도 지혜 안경을 잘 쓰고 살다가 어느 순간 벗어버려서 하나님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솔로몬처럼 지혜 안경을 벗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자유는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인데, 일주일에 한 시간 하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멈추기 싫은 마음이 들

거든요.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저를 힘들게 하지만, 제가 게임을 멈출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지금 제가 할 일은 지혜 안경을 잘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옆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같이 기도할게요.

마지막으로 저는 천국을 자주 상상하곤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온전하게 다 알게 된다고 해요. 그럼 천국에서는 지혜 안경을 따로 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날을 기다릴게요, 하나님! ☆


등불학교(소년부) 후기

# 지혜의 안경으로 살아가기



장지민 소년부 6학년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유년부 때부터 등불학교에 항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등불학교는 교육 내용도 우리를 위해 전도사님들이 많이 애써주시지만 간식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번 29기 등불학교도 부모님이 권유하셨고, 저도 등불학교의 주제가 흥미롭고 등불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많아 즐겁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등불학교는 4주간 진행되었으며, 주제는 ‘레츠 고! 바르게 사는 지혜의 안경’이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기준이 분명한 지혜’, 곧 확실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우고, 둘째 시간에는 ‘나를 바로 아는 지혜’, 즉 나의 모습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셋째 시간에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지혜’, 곧 참된 자유는 죄를 멈출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배우고, 마지막 종강 예배 때는 ‘창조 질서를 따르는 지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 질서에 대해 배우며 총 네 가

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네 번째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강 예배 때 배운 내용으로 우리 모두 협력하여 골든벨 문제를 푸는 시간도 엄청 재미있었습니다.

이번 등불학교는 전에 비해 아주 짧아서 아쉬웠지만, 저에게는 은혜로운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지혜의 안경인 성경과 함께 삶을 살아가며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6학년이라 등불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등불학교까지 열심히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

추천도서

## 존 파이퍼의 돈, 섹스 그리고 권력



존 파이퍼 저·박대영 번역/생명의말씀사

...<돈과 성과 권력>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역시 <돈과 성과 권력>의 문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의 유력한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되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존 파이퍼는 <돈과 성과 권력>은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자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책에서 먼저 <돈과 성과 권력>의 정의를 내리면서 <돈과 성과 권력>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적 가치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돈이 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수단인 것처럼.

...존 파이퍼는 <돈과 성과 권력>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돈과 성과 권력>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제 자리를 지켜야 할지를 하나님의 주권과 결부시켜 설명합니다. 마치 태양계 중심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야 함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중심에 자리하실 때, <돈과 성과 권력>이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생명의말씀사)


등불학교(초등부) 후기

# 내 마음 시계는 하나님 말씀대로



양하영 초등부 4학년



 초등부 예배 시간에 29기 등불학교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등불학교 소개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번엔 꼭 신청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새롭게 배운 것은 1주 차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확실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등불학교 4주 차 교육을 마치고,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3주 차에 시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계를 그리고 색칠하며 만드는 과정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배터리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고 멈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멈추거나 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3주 차에 배운 내용인 ‘진정한 자유’는 죄를 멈출 수 있는 힘입니다. 시계가 가고 멈추는 것처럼, 나의 죄도 멈추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죄를 멈추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말씀과 기도로 죄를 멈출 힘을 기르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 묵상 시간을 갖기는 했지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 내 생각을 많이 적었는데, 앞으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생각하고 적용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등불학교 시간에 많이 배우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 주요사역

- 1일(금)~31일(주일) 5월 사랑, 감사를 담다
- 2일(토) 온세대아침예배
- 3일(주일) 어린이주일 / 학습·세례·입교·유아세례식 / 전도회 정기모임 / 임시 공동의회
- 10일(주일) 새가족환영축제 / 외국인부 MT
- 11일(월) 안양교도소 자매결연모임
- 14일(목) 백향목 봄 소풍
- 16일(토) 부모기도회
- 17일(주일) 스승의주일(교사섬김의 날) / 청년 3·4국 모임
- 24일(주일) 온가족교회오날
- 29일(금) 국내 아웃리치 파송식


평신도상담학교 후기

# 상담학교를 지나 다시 피어난 첫사랑



유현미 장년7교구  
hereyhm@naver.com



 저는 7교구 유현미입니다. 남편이 작년 5월 해외 장기 출장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뒤, 저희 부부는 이전보다 의견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큰아이의 대학 입학, 가족 해외여행, 이사 등 여러 가정의 일을 함께 겪으며 서로 많이 지쳐 있었고, 부부 상담을 받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평신도상담학교가 '말씀 위에 세우는 행복한 동행, 부부'라는 주제로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출근을 앞두고 있어서 주일 저녁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는데 최근 회사 일로 바쁜 남편이 참여하겠다고 하니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시간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하기로 했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저희 부부가 서로의 다른 관점을 수용하기보다 부딪힘 자체만을 힘들어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서로 보지 못하는 부분을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대화 중에 제가 "당신 말 알겠는데"라고 반응해 주기를 원했던 이유와, 매일 국이 끊이지 않게 준비해 달라고 했던 요구 역시 결국은 존중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나니, 이전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남편의 요구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역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기의 행동과 태도를, 강사님의 강의를 통해 객

관적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부부의 갈등을 단지 우리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부부학교를 통해 많은 부부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임을 알게 되며 우리 부부의 모습도 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서로 손을 잡고 "당신, 나에게 서운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묻고, 상대방의 말을 들은 뒤 그 내용을 다시 말해 준 후에 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제대로 리마인드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그동안 제가 남편의 말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말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저 역시 더 주의 깊게 들으려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대화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강의에 참여한 후에도 다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배운 대화 방식을 적용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 미안했던 마음과 섭섭했던 마음을 나누며 오래 쌓여 있던 감정들도 조금씩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매주 주어진 숙제 또한 서로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부부끼리 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강사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오셔서 "남편이 없으면 어떤 것 같으세요?"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얼마 전 출근길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남편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났고, 저

는 "무너지죠"라고 대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제 대답에 놀랐고, 그동안 풀리지 않던 마음들이 풀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 역시 제 안에 남아 있던 남편을 향한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의 첫사랑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은 저를 보면 안아 주고, 처음 반했던 이야기를 종종 해 줍니다. 저는 남편만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부부학교를 통해 제 마음을 켜켜이 벗겨보니 마음 깊은 곳에 첫사랑의 마음이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로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결혼한 거라며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후회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서로를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다들 땀 너무 힘들지만 잠들기 전에 손을 잡고 자는 우리를 부부로 맺어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관계에 대한 깊은 감동과, 남편을 더욱 소중히 섬기지 못한 데 대한 죄송함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부학교를 통해 힘들었던 부부 관계 가운데 많은 깨달음과 도움을 얻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배운 대로 노력하고 인내하며 사랑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이 가정 안에서 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결혼예비학교 후기

# 결혼예비학교를 통해 바로 세운 결혼의 본질



이성은 청년부  
tjddms6321@naver.com



 안녕하세요. 청년부 목양 3국에 속한 이성은입니다.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는 지체들이 결혼예비학교를 통해 많은 유익을 누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그 시간을 기대해 왔습니다. 감사와 기대의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고 기대 이상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혼예비학교는 '신앙 안에서 함께 걷는 부부', '다름의 축복',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성경적 결혼관'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강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결혼을 준비하던 제 마음의 기준을 바로 세워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첫날 '신앙 안에서 함께 걷는 부부' 강의를 통해 결혼을 '늘 행복해야 하는 것'으로만 여겼던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로맨스나 자아실현 같은 잘못된 목적이 결혼의 본질을 어떻게 흐리는지 강의를 통해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내 행복의 수단으로 여길 때 작은 흔들림에도 관계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느꼈습니다. 결국 결혼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고 부부 각자의 자기중심성과 싸워가는 여정임을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중 특별히 두 가지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첫째, 결혼을 준비하는 이 기간이 단순히 결혼식을 위한 준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한동안은 결혼 준비 계획과 실행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서로의 가치관에 관한 대화는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통해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결혼생활이며 이를 위해 서로의 생각과 신앙, 삶의 방향에 대해 깊이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삶의 가치관과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 깊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자 생각의 다름을 체감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차이를 확인하며 서로를 더 온전히 이해해가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둘째, 결혼식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혼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하객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지 등 '보기 좋은 예식'을 만드는 데만 집중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통해 사람보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요소보다 찬양과 말씀, 기도의 모든 순서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예배로서의 의미를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저의 기도 제목도 달라졌습니다. 결혼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고 결혼 이후의 삶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마주하는 서로의 다름은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영역임을 실감합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 준비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귀하게 여기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부의 신비로운 연합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권적 섭리 안에서 맺어진 인연이라는 확신이 앞으로의 고난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비학교에서 배운 본질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함께 걷는 믿음의 부부가 되겠습니다. ☆

새가족

▶▶ 장년

- 이재진(80)
- 정인범(60)
- 김형진(89)
- 조수현(91)
- 임건순(43)
- 오혜순(68)
- 이성호(74)
- 손혜린(79)
- 성예진(89)

▶▶ 청년

- 김영민 (07)
- 문채원 (05)
- 김인애 (96)
- 임수민(97)
- 김수환 (97)
- 김휘성 (94)




어린이회심집회(초등부) 후기

#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꿀래요



신서울 초등부 4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4학년 신서울입니다. 이번 회심집회에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잘못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회심집회 낮 예배 설교 제목은 '되돌아서 다시 가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회개를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똑같은 기도만 하면 지치고 회개 기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못된 걸 숨기면 더 혼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숨기다가 나중에 말하는 것보다 바로바로 말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렇다고 회개 기도 자체가 죄를 없애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조롱당하시고 채찍질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는 기도만 하고 끝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보면서 서로를 용서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쁜 마음을 구해야 해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녁 예배가 시작할 때쯤 슬슬 피곤했지만, 신나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피곤함이 없어졌어요. 저녁 예배의 설교 제목은 '회심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의 최후'였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말씀을 보고도 외면하는 사람들이에요. 회심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일어나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야 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 속에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티를 못 보는 사람이고 순종이 없고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성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회심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주일 기도 시간에 일주일의 잘못을 하나님께 열심히 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회심집회 낮 예배 때는 하나님께로 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저녁 예배 때는 회심의 은혜를 안 구하면 어떻게 되고, 회심의 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못된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어요. 저는 죄 속에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이 없고 오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회심집회의 두 번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어린이회심집회(유치부) 후기

#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조이엘 7세

 회심집회를 한다고 해서 기대가 되었어요. 교회 가는 게 정말 좋은데 토요일에도 교회를 가게 되어서요. 교회 가는 것은 재미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찬양을 하고 선생님들이 무대에서 보여주시는 나사로 이야기 연극을 보고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공과를 했어요. 전도사님은 나사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며칠 뒤에 나사로에게 가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와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찬양을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신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유치원 친구들 생각이 났어요. 친구들과 함께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회심집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신 연극도 재미있었어요. 회심집회 또 하고 싶어요. ☆


주바라봄특별새벽기도회 후기

# 새벽, 나를 붙드신 예수님의 기도



김혜정 장년5교구 mottunge@gmail.com



 저는 장년 5교구 77년생 김혜정 집사입니다. 저는 새벽에 집중이 잘 되는 편이라 제게 새벽 시간은 참 귀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 몰래 새벽에 일어나 책상 등을 켜고 성경을 보곤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새벽기도 가시려고 일어나시는 소리가 들리면 짹 짹 불을 끄고 자는 척하다가, 나가시면 다시 일어나 성경을 보곤 했는데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었지만, 성경을 펴고 노트에 눈물을 흘리며 적어 내려갔던 예수님을 향한 편지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제 신앙의 첫 큐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7월, 대기업에 입사하며 세상 문화 속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첫 회식에서 3차까지 이어지는 낯선 문화를 겪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처음 권유받은 술에 놀란 마음도 있었고, 피곤함에 지친 상태에서 마주한 새벽의 나이트클럽과 그곳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보며 "세상은 새벽을 이렇게 보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세상 속에 던져진 저의 모습과 앞으로 이어질 사회성

활에 대한 걱정에 택시 안에서 그저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 4시, 동이 뜨기 전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교회를 찾아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의 그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새벽예배라는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신 목사님과, 그 유산을 이어오신 당시 신원중부교회 담임목사님께 참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도 항상 새벽예배를 드리고 출근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 새벽예배에 나오니 권사님들께서 "안힘드니?" 하고 수시로 물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새벽예배는 어른들만 드리는 예배 같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도 새벽예배가 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는데, 열린교회에서 온 세대 새벽예배(현 아침 예배)가 생겼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번 '주바라봄 특별 새벽기도회'는 찬양의 감격이 넘쳤습니다. 새벽을 찬양으로 깨우는 시간이 정말 좋았고, 교구와 부서, 사역자분들, 여러 찬양팀을 만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풍성한 찬양과 교구별·부서별 목사님들, 그리고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느끼는 안전이 아니라, 불편한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을 붙드십니다!"

신입사원 환영회라는 이름으로 마주했던 술자리와 노래방, 나이트클럽 같은 세상 문화 속에 홀로 던져져 있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어도 나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삶의 방향을 더 분명히 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분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의 상황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에 붙들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몸 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며, 죄를 깨닫고 영광의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왕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앞에 서서 저 자신에게 묻고 또 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

어린이회심집회(교사) 후기

# 가르치러 갔다가, 은혜를 배우다



한덕환 초등부 교사  
dhan83@gmail.com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 여름부터 약 7년간 열린교회에 나오기 시작해 올해 1월부터 초등부 교사의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보조 교사로 지원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박승훈 전도사님의 권유로 담임교사를 맡게 되었고, 예배 시간 찬양팀에서 싱어 섬김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에 쪼들려 세상 것들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 자신을 위해 올해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 기도하던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는지, 온전히 자의가 아닌 주님의 부르심에 이끌리어 초등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고, 요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심집회가 있던 고난주간에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 피로와 체력 문제로 참석을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반나절을 회심집회로 보내며, 찬양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다음날 부활주일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내야 하는 상상을 하니 사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등부를 오랫동안 섬기고 계신 선생님들을 보며 용기를 내게 되었고, 그분들이 거의 다 참석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없으면 저 때문에 은혜를 덜 받을 것 같은 저희 반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어려운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시간, 평소 주일 예배 시간보다 2배 정도 많은 인원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예배실의 분위기는 부흥 그 자체였습니다. 1,2부로 나뉘어 있던 인원이 한 곳에 모여 찬양 드릴 때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모여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말이 아닌,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양을 시작으로 말씀 듣는 시간, 공과 활동, 찬양, 말씀, 기도회, 소감문 작성까지 5시간 동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매시간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말씀 듣고, 회심의 은혜를 찾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감사함과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다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 교회 집회 때 5시간 동안 집에 가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남아 있었으나 회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집이 가깝고 장시간 참석하는 게 힘들어서 저는 중간에 집에 갔었던 것 같은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회심을 찾아 최선을 다해 완주하는 모습이 참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심집회의 장점은 회심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와는 다르게 장시간 함께하다 보니 서로 간에 마음이 열리고 좀 더 친밀해지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치 군 생활을 함께 오래 하면 전우애가 생기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침내 반별 공과 시간에 저희 반 아이들은 제가 받은 간식과 물을 숨기거나 저에게 이런저런 장난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복음 키링을 함께 만들고, 회심의 의미를 나누고 되새김과 동시에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함께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도 먹으니 식구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심집회를 통해 회심집회는 주일예배와는 별도로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편안과 편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힘들과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심집회는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자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건이 닿는 한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초등부 친구들을 귀하게 섬기고 돕겠습니다. 이 초등부 친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 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배우게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를 초등부 교회학교 교사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 곰곰이 생각

## 불 속에서의 희망사항

글·그림: 나동훈  
gongom2@designzip.co.kr

불 속에 들어온 것 같다.  
한 줌의 재가 될까 두렵다.  
‘나만 타버리고 있구나’ 싫다.



느닷없이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어쩌면 도자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상한 희망 사항이 생기자,  
이상한 기도가 나온다.

“주님 변화시키려거든, 저는 막사밭로 해주세요!”



막사밭!

화려하지도 않고, 고결하지도 않은 막사밭.  
손에 착착 감기는 흔하디흔한 막사밭 같은 사람들을 늘 부러워했는데, 어쩌면 지금이 기회인가 싶다.

버거운 삶은 기회입니다.

한 줌의 재로 사라질 수도 있고, 도자기로도 변할 수 있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64:8)

### ‘열린 리폼드 라이브러리’ 개관

열린교회가 이 시대의 두란노서원을 꿈꾸며 신학자·목회자·신학생을 위한 전문 신학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3만 5천여 권의 방대한 장서, 150평 규모의 쾌적한 연구 공간.

진리 탐구와 말씀 연구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학문적 정진을 이어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치: 열린교육관 5층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화요일 10:00 오픈) / 토요일 09:00-17:00
- 공신력: 주간기독교신문, CBS 뉴스 등 교계 주요 언론이 주목한 신학 도서관

## 5월 愛, 감사를 담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하루 한 가지 감사를 기록해 보세요. 감사는 찾을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참여 방법**

1. 매일 감사 한 가지 기록하기
2. 감사저금통에 담기
3. 마지막 날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감사가 넘치는 5월, 함께 만들어가요.  
-가정사역부-

### 한 컷 말씀

사진: 김범무(장년4교구)

네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믿음일기

# 박수보다 은혜!

김지선 장년5교구  
loftybelief@naver.com



**저의 어린 시절은 늘 카메라 불빛과 타인의 시선 속에 있었습니다.** 6살부터 약 11년간 아역배우로 활동하며 제 삶의 기준이 된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촬영장에서 어른들이 "잘했어, 역시 최고다"라고 말해 줄 때면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았지만, 카메라가 꺼지고 집에 돌아오면 그 기쁨은 금세 사라지곤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 저에게 교회는 인정욕구를 채우는 또 다른 무대일 뿐이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어른들의 칭찬을 받을 때면 존재감이 확인되는 듯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유능하고 섬김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수록 제 내면은 무너져 갔습니다. 가족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자기 방 청소조차 스스로 하지 못하는, 불친절하고 무기력한 딸이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저는 늘 깊은 공허함 속에서 10대를 보냈습니다.

**배우 활동을 마치고 성인이 되어 떠난 단기 선교지에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낯선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일대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던 삶의 수많은 좌절과 고통의 순간들이 그제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깨닫자, 타인의 시선 때문이 아닌 자신의 갈망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싹텄습니다. 교리로만 배워왔던 하나님이 제 삶 안에 살아 계신 분으로 다가오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으로 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심하여 믿음을 갖게 된 후에도 오랜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했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멋져 보이는' 모습에 집착했습니다. 선교사나 목회자 같은 헌신적인 삶을 동경하며, 그렇지 않은 이들을 은연중에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와 직접 관련 없는 일을 하는 분들을 멀리하며, 신앙의 열심을 훈장처럼 여기곤 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연기를 할 때나 교회에서 봉사할 때나, 저는 항상 누군가의 평가를 의식하거나, 이상적인 제 모습을 만들어내고는 그것에 스스로 만족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며, 회심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제 고집을 내려놓는 과정이며,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태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제 삶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며 교회를 찾던 중, 온라인으로 접한 열린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나니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의 비전이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열린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환경에 진심이라는 이야기에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열린교회로 들어와 받았던 새신자반과 성장반은 신앙의 기초와 공동체의 필요성을 재정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형 교회임에도 한 사람을 향한 섬세한 배려에 감동했고,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위기가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성장반에서 목사님과 일대일로 마주하며, 해결되지 않았던 신앙적 궁금증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관성적으로 믿어왔던 것들이 성경적 근거 위에 정립되자,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분명해졌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다시 세워지니, 열린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형식적인 인사를 넘어 서로의 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단기 선교처럼 눈에 보이는 뜨거운 실천 속에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런 열심도 귀하게 여기셨음을 이제는 압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와 단둘이 고립된 것처럼 느껴지는 육아의 현장에서 보내는 하루 역시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청년 때처럼 드라마틱한 실천은 아닐지라도, 아이를 재우며 부르는 찬양 한 소절, 아이를 키우며 저 자신을 눈물로 다듬어가는 순간, 몸과 마음이 지칠 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엎드리는 기도까지,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없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고군분투를 가장 소중한 예배로 받아주고 계셨습니다. 육아하며 마주하는 제 부족함을 보여 저는 매일 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깨달음은 '부부구역모임'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17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모임에 갈 때, 구역 식구들이 저희 아이를 마치 자기 아이처럼 반겨주는 모습에서 공동체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비슷한 또래 부모들과 고민을 나누며, 설교에서 배운 것들을 삶에서 함께 씨름하고 격려합니다. 서로의 실패와 부족함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매번 느낍니다. 육아라는 바쁜 일상에서 놓쳤던 신앙의 습관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공동체 덕분이었습니다. 열린교회는 제게 단순히 예배 장소를 넘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지체들과 함께 자라가는 생명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소망은 더 이상 세상의 박수나 종교적 우월감에 머물지 않습니다.** 매일의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제 아이가 부모의 말이 아닌 '살아내는 신앙'을 보고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청년 시절의 열정과도 또 다른, 일상의 작고 소중한 순간들을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제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를 열린교회로 인도하시고, 화려한 사역이 아닌 소박한 일상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제 가정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성진
-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용회 이동훈 박희준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희 김남근
- 부목사**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심재운 정대한 김하림  
이규희 최영광 조일권 오세광 김민성 최은광
- 협동목사** 정창욱
- 강도사** 이 찬
- 전도사** 최선미 양승희 김미영 조희숙 곽혜정 김현희 김다영 김진하  
이순이
- 교육전도사** 최현성 박주광 원준식 광승훈 권세원 이해선 한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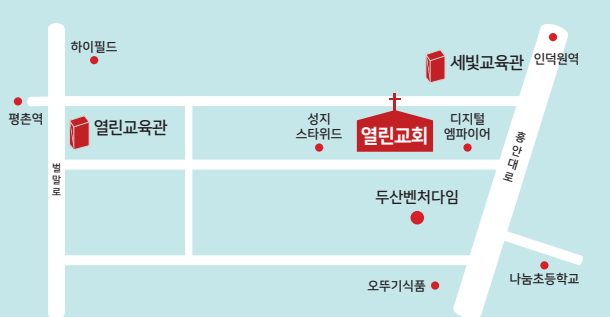
## 파송선교사

- A국:** 1 unit / **B국:** 1 unit
-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우
- 태국:** 김요한 & 이진

##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8시(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10시(본관 3층 예배실)
	3부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2시(본관 3층 예배실)
주중예배	수요일예배 오후7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목요일장일예배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기도회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금요기도회 오후8시(본관 3층 예배실)
	화요일기도회 오전10시(본관 1층 예배실)
	수요일기도회 오전10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토요일기도회 오후4시(별관 2층 교육실4)
	토요일기도회 오후4시(별관 2층 교육실4)
교회학교	청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1층 교육실1)
	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2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4층 교육실3)
	유치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3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2층 교육실1)
	영아부 오전10시/정오12시(별관 1층 교육실2)
	사랑부(취학부) 오전10시(별관 1층 교육실1)
사랑부(청년부) 오전10시(별관 2층 교육실4)	
외국인	외국인팀 정오12시(세빛교육관 5층 외국인실)
백향목 공동체	봄·가을학기 금요일 오전10시30분(본관 1층 예배실)
금요	미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1)
테마학교	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2)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서면 됩니다